

하늘과 구름

| 용타 스님 |

하늘을 보는 것은 돈오요, 구름을 치우는 것은 점수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8부)

041. 돈망의 모든 것

자, 어떠한가? 지금. 여기. 그냥. 있는가? 아니, ‘지금-여기-그냥-깨어있는 것’이 경험되는가? 그리고 아공(我空)이요 법공(法空)이니 안팎으로 걸릴 것이 없어서 안팎으로 벡터(Vector) 높음을 하지 않고 있어지는가? 그리고 나아가, 심신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으니 좋을 뿐이고 설혹 좋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이중화살을 쏘지 않고 가벼이 수용되어지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을 의식한다면 의식되는 이 의식(意識) 말고 어느 곳에서 자신의 불성(佛性), 자신의 자성(自性)을 찾겠는가? 게다가 아공(我空) 혹은 법공(法空) 등의 방편에 의해 안팎으로 아무런 걸림이 없다면 걸림 없이 탁 트인 의식을 바로 지금 경험할 것이니 그 걸림 없는 트인 의식이 바로 부처요, 불성이요, 자성이요, 무애요, 니르바나요 돈망(頓忘)이라 함에 무슨 주저가 있겠는가!

내가 격월로 쓰고 있는 글을 사색하는 마음으로 정독해 오셨다면, 위의 글이 용타(龍陀)가 천하에 전하고자 하는 돈망(頓忘)이라는 것을 그냥 수궁하실 것이요, 돈망을 경험하는 일이 극히 조금만이라도 체험된다면 그것이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전부라는 것도 수궁하게 되실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돈망(頓忘)을 깨닫고자 한다면 용타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드렸다. 이제 같은 이야

기를 거둬 듣고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이어서 내가 돈망을 파지(把持)하시도록 돕고자 이르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도 거의 같은 말들의 반복일 것이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돈망이 그토록 파지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감정적인 삶의 습성들이 의식공간에 정화되지 않은 염체(念體)로 응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각자들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필요한 법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직접 돈망을 가리키는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는 돈망 파지를 장애하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말씀들을 한동안 올릴 것이다. 비유를 거둬 든다면 돈망(頓忘)은 구름 위쪽의 맑은 하늘이다. 즉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일단 구름이 보이고, 현재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편에 맑은 하늘이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일단 두 가지이다. 맑은 허공(하늘)을 보는 것이 그 하나요, 구름을 치우는 것이 또 하나이다. 하늘을 보는 것은 선오(先悟)요, 해오(解悟)요, 돈오(頓悟)요, 견성(見性)이요, 돈망파지(頓忘把持)이다. 구름을 치우는 것은 후수(後修)요, 증오(證悟)요, 점수(漸修)요, 보임(保任)이다.



042. 하늘과 구름

하늘 보는 일과 구름 치우는 일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가풍(家風)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중시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론으로는 일단 하늘을 보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

하다. 물론 이 일반론이라는 것도 가풍의 문제요 상황의 문제이겠지만 동사섭 문화촌에서는 허공을 보는 일, 곧 돈망파지(頓忘把持)를 99%의 의미로 중시한다. 왜 그럴까? 사자 새끼가 양떼 속에서 자라나 스스로를 양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사자 새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043. 선오후수(先悟後修)

하늘을 본 다음에는 구름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선오(先悟)를 한 다음에 후수(後修)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되는데, 구름치우는 일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별도의 구름치우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냥 보았던 하늘을 거듭 다시 보는 일이 주로 있을 뿐이다. 동사섭 수련장에서는 수행에 있어서 돈망(頓忘)을 파지(把持: 이해, 깨달음)하는 일이 99%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돈망을 파지한 상황에서는 닦을 일(修, 後修, 漸修)이 99%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후수(後修)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안내한다. 깨달았다고는 하나 깨달음 아닌 상태로 살아온 역사가 긴 세월이라 깨달음 아닌 습성이(업장이) 몸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문득문득 습관 되어 있는 깨달음 아닌 상태의 삶이 살아지곤 한다. 그 악습의 삶을 깨달음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깨달음이, 둘째로는 닦음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성취되었다면 깨달음 다음의 닦음, 곧 후수(後修)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물어진다. 경우에 따라 선정(禪定)이나 지계(持戒) 등 다양한 방편(方便)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깨달음 자체를 반복 관행(觀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곧 돈망파지(頓忘把

持) 자체를 반복 관행(觀行)하는 것이 최선의 후수(後修)이다. 동사섭 수련장에서는 돈망을 파지한 수련생이라 할지라도 돈망파지를 한 것은 같으나 그 파지(把持)한 돈망(頓忘)을 시간적으로 길게 견지할 수는 없다고 하소연하는 예들이 있다. 이에 상응하는 기계적인 가르침은 “파지한 돈망의 의식 상태를 1분짜리, 10분짜리 등 긴 시간 견지할 수 있기를 집착하지 말고 1초짜리 돈망을 거듭 거듭 재생산하세요!”이다. 많은 공부인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기를 원하면서 30분쯤, 60분쯤 일체의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의식 상태로 견지되기를 집착한다. 공감이 되는 바이기는 하나 필자는 그것을 1번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보다 긴 시간을 순수의식으로 견지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30분의 견지를 집착하면서 용쓰는 것보다 1초 간의 깨달음을 재생산하는 일을 열 번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 닦음은 양(量)의 문제이지만 깨달음은 질(質)의 문제이다. 돈망은 깨달음이다. 귀하께서 1초 간의 돈망이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전부이다. 바닷물의 맛을 알기 위해 바닷물 전부를 마셔볼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방울의 바닷물을 혀에 대보면 될 뿐이다. 1초 간의 돈망을 파지(把持)할 수 있는 자는 어느 때이든 문득문득 그 돈망이라는 깨달음을 재확인만 하면 된다.

044. 믿음 공덕

구름이 끼어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늘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아직 돈망을 파지는 못했다 해도 사람의 본마음은 허공처럼 탁 트인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중대한 지혜 하나이다.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매사가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돌다리가 꺼

지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확인을 한 다음에 걸어야 한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DNA 검사를 마친 다음에야 불러야 한다면, 동숙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괴한으로 돌변하지 않을 것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잠을 청해야 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때문지 않은 상태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상상될 수 있는 법이다. 그 순수상태를 직접 체험해야겠지만 오염되기 이전에는 순수했으리라는 것, 또 미래에 탐진치 삼독을 정화하면 얼마든지 순수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의 경우, 돈망을 파지하지 못했을 때, 과거 언제인가 순수했을, 미래 언제인가는 순수해질 상태의 의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 공덕이 지대함을 충분히 경험한다.

045. 해탈의 맛

동사섭 수련 지도자 한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스님, 제가 돈망을 파지한 것은 같은데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파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부촌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해프닝 하나이다. 그래서 “귀하가 돈망을 파지했다고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평소 콜라맛으로 중독된 어떤 사람이 생수(生水) 맛을 접하고 차라리 콜라를 마시겠다고 할 때 귀하는 어떻게 충고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대답해 준 일이 있다. 깨달음이라 하면 무언가 유별난 환희로 움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공부 중에 얼마든지 유별난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달음과 체험을 혼동해서



는 안 된다. 체험이란 대체로 공부해가는 도중에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느낌의 증상들이다. 몸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체험은 육신통(六神通)¹⁾과 같은 특이한 인식이나 특이한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짧은 날 한 세월을 깨달음이란 바로 육신통(六神通)이라고 여기며 산 일이 있다. 넓은 의미로 깨달음이라는 범주에 육신통과 같은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탐색해가는 동안에 깨달음이라는 개념에 붙을 수 있는 검볼들이 치워지게 되었다. 깨달음은 보다 평이하게, 보다 보편적으로 다가 왔다. 부처님은 일상사 생활이 그냥 깨달음의 삶일 터이다.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시는 일, 일어나 기지개를 켜시고 세수를 하시며, 공양 때가 되어 탁발을 나가시는 일이며, 공양을 드시는 일, 마을로 나아가 인연 따라 사람을 만나 상담하시고 법을 설하시는 일, 피곤하시면 자리를 펴고 등을 붙이시는 일 등등이 그냥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점점 확연히 수궁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깨닫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깨달음이란 몰랐던 사실이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어떤 사실이나 이치를 알게 않으므로 인식에 전환이 일어난다. 인식에 전환이 일

1) 육신통(六神通): ①천안통(天眼通): 일반적인 시야권 밖에 있는 사물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 ②천이통(天耳通): 일반적인 청취권 밖에 있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능력, ③타심통(他心通): 타인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능력, ④숙명통(宿命通): 전생에 생존했던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⑤신족통(神足通): 어떤 장소에나 임의로 갈 수 있는 능력, ⑥누진통(漏盡通):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

체험은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깨달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남으로써 그 전환된 인식에 상응하는 느낌과 행동이 따르게 된다.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치를 깨달으셨다. 그 존재의 이치는 연기법(緣起法)이었다. 부처님은 연기법에 상응하는 삶을 사셨다. 연기(緣起)이므로 무아(無我)요 해탈(解脫)인 삶, 연기(緣起)이므로 동체대비(同體大悲)인 삶, 연기(緣起)이므로 네트워크적인 평등평화인 삶을 사셨던 것이다. 체험은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깨달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전환된 인식에 상응해서 따라오는 삶[사유(思惟:知)-정서(情緒:情)-행동(行動:意)]은 분명 긍정적일 것임은 당연하다.

046. 신념(信念)과 방편(方便)

일단 공부인은 자신의 의식공간에 떠돌고 있는 염체(念體)²⁾에 대한 자각 내지 정리에 있어서 민첩해야 한다. 탐욕(貪慾) 염체나 분노(忿怒) 염체는 정화해야 하고, 다양한 감정(感情) 염체는 순화해야 한다. 의지(意志) 염체는 선(善)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관리해야 하고, 인상

2) 의식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즉 감정, 신념, 욕구, 의지, 분노, 인상, 사실 등. 감정 염체-욕구염체-신념염체-의지염체-인상염체-사실염체 정도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는 개념이 수궁이 된다면 만법(萬法)이 바로 염체(念體)이다.

(印象) 염체나 사실(事實) 염체는 그 실체성(實體性)에 속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염체는 신념(信念) 염체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신념이라 해도 이를 진리시(眞理視) 하지 않도록 하라. 진리시 하는 순간 그 진리라는 염체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무게를 갖게 된다. 자유로운 의식공간에 굳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방편(方便)시 하라. 진리라 여겨지는 그 염체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망치나 호미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내려놓듯 방편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제쳐 두면서 오직 허공처럼 자유로운 의식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굳이 진리라 이름 붙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이 마음이다. 부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자유로움을 위한 방편 물질일 뿐이다. 그것들을 진리(眞理)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탁트인 의식공간 한복판에 괜한 우상물을 모시게 되고 우상 앞에 노예가 되기 이상이다. 부처든, 신이든 우리의 염체(念體)일 뿐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방편일 뿐임을 안다는 것은 중대 깨달음 하나이다. 진리시(眞理視)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부담과 집착과 독선을 빚어내면서 온갖 잡음으로 소란을 피운다. 설혹 방편(方便)시 하더라도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공간에 짐으로 작용하면서 흔적을 남긴다. 기러기 허공을 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047. 빔 우주론

세상은 일단 외우주(外宇宙)와 내우주(內宇宙)로 나뉜다. 외우주란 우리들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요, 내우주는 사람 자


신의 의식공간이다. 외우주는 물질공간과 우주공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빔우주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외우주인 물질공간이나 우주공간이, 그리고 내우주인 의식공간이 본래 비었다는 것이다. 즉 우주가 본래 비었다는 것. 우주가 본래 비었다는 논지가 인식 차원에서 수궁된다면 어떠하겠는가? 돈망의 의식 차원을 경험하고자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외우주(外宇宙)를 보라. 99.99%로 빈 공간에 0.01%의 별들로 되어 있다. 즉 외우주가 99.99%로 비었다는 것을 말한다. 0.01%의 별들은 결국 물질이다. 물질은 원자군(原子群)이다. 원자(原子)는 외우주와 같이 99.99%의 빈 공간에 0.01%의 소립자군(素粒子群)으로 되어 있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99.99%로 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립자(素粒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빔이며, 나아가 소립자는 관측 차원에서 입자(粒子)성을 버리고 파동(波動)성으로 전환해버린다. 결국 외우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빔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법리에 부합되어버린다.

내우주(內宇宙)라는 것도 99.99%의 텅 빈 의식공간에 0.01%의 염체들이 있을 뿐이요, 염체라는 것은 또한 염체일 뿐 아무런 실체성이 없으니 내우주(內宇宙) 역시 그저 빔인 것이다.

결국 우주란 있다고 하기로는 없어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없다고 하기로는 있어서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진공묘유(眞空妙有)요 묘유진공(妙有眞空)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³⁾이다.

3) 금강경의 키포인트. 걸림없는 삶.

안팎으로 확연하게 비어 있음이 명상적으로 수궁되는 순간 무엇이 체험되는가 보라. 오직 무한히 열려 있는 깨어있음만 현전함이 느껴질 것이다. 곧 빔우주론만으로도 돈망(頓忘)의 의식 차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